

SK에너지, 해상오염 방제 문제없다!

해상 원유하역시설 2기 집중관리 ... 긴급 초동방제 시스템 구축

최근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초비상상태에 빠진 가운데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가 해양 기름 유출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본 방침이 주목되고 있다.

12월11일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에 따르면, 해상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매월 2차례 가동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수시로 초동조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SK에너지가 해양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설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Buoy)로, 직경 15m 가량의 원통형으로 항상 바다에 떠 있는데 울산 앞바다에 2기가 설치돼 있고 수심이 얕아 회사 부두에 접근하기 힘든 대규모 유조선들이 부이에 원유를 공급하면 해저 송유관을 통해 3km여 떨어진 SK에너지의 육상 원유저장 터미널까지 원유를 보내게 된다.

부이 1기를 통해 하역되는 원유량은 6100만배럴(843만톤) 정도로 국내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원유 부이가 처리하는 원유량이 많고 부이에는 거의 매일 대규모 유조선들이 붙어 하역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해도 대형 기름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SK에너지는 2기의 부이 주변에 10명의 방제팀이 탄 방제선 1척씩을 24시간 상주시키고 있다.

특히, 해상에 돌출돼 있는 부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박과 부딪혔을 때 해저 송유관에 있는 기름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에너지 방제팀은 항상 비상 대기 상태에 있는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면 훈련된 26명의 긴급 방제팀이 20분 이내에 사고 해역에 도착해 초동 방제작업에 나서도록 돼 있는데 초동방제의 성공 여부가 기름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방제선 8척과 오일펜스 5km, 유회수기 6개, 흡착포 6000kg, 유처리제 5만2000리터 등 기름을 전문으로 방제하는 방제조합 못지않은 수준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장비만으로 48시간 동안 사고 해역에서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2차 해상오염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초동방제 시스템으로써 일단 회사차원에서 48시간 동안 방제를 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방제전문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방제 자재를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기름유출 사고를 1-4급으로 분류하고 대응은 1-5단계로 나눠 상황별로 대처하고 있다.

200리터 이하의 기름이 유출됐을 때 4급, 200리터에서 30톤 이하 3급, 30톤 이상 100톤 이하 2급, 100톤 이상 1급으로 분류하고 시간대별 유출된 기름의 확산 속도 등을 정해 해당 해역에 방제선을 투입하는 등 체계적인 방제를 하고 있다.

대응도 1단계는 유·무선 신고 등 긴급대응, 2단계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방제선단 구성, 3단계는 해상방제작업, 4단계는 방제작업 종료 및 해상 순찰, 5단계 사후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소규모 유출 사고는 2시간을 채 넘지 않으면 방제가 종료된다.

한편, 울산 앞바다에는 해상 원유하역 시설인 원유 부이가 SK에너지 2기, S-Oil 1기, 한국석유공사 1기 등 모두 4기가 있고 2006년 울산항을 오간 2만5992척의 선박 가운데 원유 운반선, 화학물질 운반선, 석유정제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선은 무려 전체의 58.3%인 1만5161척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11>